

가을 호랑이들 ‘끝장 투혼’

KIA, KT 상대 와일드카드 결정전 무조건 이겨야 하는 ‘벼랑끝 승부’ 선수들 “시즌과 같다” 편하게 준비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가슴 뛰는 하루를 보냈다.

KIA는 13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2022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다.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만큼 무조건 이겨야 하는 ‘벼랑 끝 승부’. 그만큼 긴장감 가득한 무대였지만 선수들은 “정규 시즌 경기와 같다”며 평온하게 경기를 준비했다.

‘만행’ 최형우는 “포스트 시즌은 긴장 안 된다. 개막전만 긴장된다”며 여유롭게 루틴대로 하루를 보냈다.

시즌 막판 결정적인 역전 투런을 날리며 팀의 5위 싸움에 기여했던 박동원도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새 팀에서의 가을 잔치를 즐겼다.

박동원은 “(가을야구) 많이 했는데 우승 경험은 없다. 우승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다. 그 선수들이 중요할 것 같다. ‘긴장하면 안 돼’라고 의식하면 더 긴장하게 된다”며 “각자 밤에 생각한 게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면 계획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 먼저 물어온다면 같이 생각하는 게기가 될 것이다. 경험 있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고 경계했다.

두산에서 가을 DNA를 축적한 류지혁의 표정도 여유로웠다.

류지혁은 박찬호를 키플레이어로 꼽기도 했다.

류지혁은 “중심 잡아주는 애가 잘하면 옆에서 알아 따라간다. 잘하는 것보다 실수 안 하면 된다. 방향이는 어떻게든 점수를 뽑을 수 있다. 1점 싸움을 하면 승산이 있다. 1점 싸움을 하기까지 수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험 없는 어린 선수들도 ‘요즘 선수’답게 첫 가을 잔치를 즐겼다.

“잠을 잘 잤다”며 웃은 이의리와 정해영. 이의리는 “시즌 치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포스트 시즌이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남은 경기 시즌 치르는 기분으로 하자고 했다”고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정해영은 “경기가 나가고 싶다. 관중이 많아 큰 게임이 실감난다”고 첫 가을잔치 날을 즐겼다. 막내 김도영도 무뎀담한 표정으로 경기 개막 시간을 기다렸다.

김도영은 “똑같은 마음으로 중요한 상황에 나가도, 평소와 다를 없이 주문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 주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시합 전에 늘 하던 것처럼 준비했다”고 첫 포스트 시즌을 이야기했다. 황대인은 모처럼 폭 자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대인은 “마음이 편하다. 잠을 잘 잤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편하다. 편하게 해야 된다. 시즌과 똑같은 경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올 시즌 내가 잘하는 날 팀이 이겼다. 잘하고 싶다. 팀플레이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비다. 수비에 집중하려고 한다. 방향이는 성범이 형이 쳐줄 것이다”고 웃음을 보였다.

선수들과 김중국 감독이 주목한 ‘중심타선’ 나성범은 ‘경험’ 보다 ‘패기’를 이야기했다.

“모두 나한테 떠넘긴다”고 웃음을 보인 나성범은 “큰 경기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멋 모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까 없이 막 하는 것이다. ‘반짝스타’가 누구일지 모르나, 우리팀에서 두 명이 되면 좋겠다. 내가 되어도 좋다”며 웃었다.

웃음이 가득했던 덕아웃. 하지만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던 순간을 맞은 이도 있었다. 류지혁이 ‘키플레이어’라고 꼽았던 박찬호는 이날 경기에 나서면서 포스트 시즌이라는 꿈을 이뤘다.

소원 성취 무대가 됐지만 박찬호는 “잠을 잘 잤는데 심장이 떨린다. 정말 기다렸던 무대다. 잘 할 것이다”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가장 긴장한 이는 바로 ‘초보 사령탑’ 김중국 감독이었다.

김중국 감독은 “야구장에 들어서면서 실감이 났다. 특별한 작전은 없다. 작전을 많이 구사하지 않



가을야구 시작 13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KBO리그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1차전 KIA 타이거즈와 kt wiz의 경기. KIA 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팀이 이기는 것 같다. 작전한다고 감독이나서면 선수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감독으로서 첫 포스트 시즌이라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그라운드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선수도 있었다.

전역과 함께 팀의 5강 싸움에 힘을 보태면서 ‘가

을잔치’까지 맞는 김기훈과 극적으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 합류한 포수 신범수가 주인공이다.

김기훈은 “마운드에 오르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았다. 소중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다.

신범수는 최종전이 열렸던 8일 1군에 등록된 뒤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합류했다. 앞서 자리를 지

키고 있던 김선우가 정식 선수로 등록이 늦어지면서 신범수에게 포수 한 자리가 돌아간 것이다.

신범수는 “행운이다. 꿈꾸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지금 마음으로 내년 준비를 하려고 한다. 경기에 나가는 것을 떠나서 엔트리에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고 웃었다.

/수원=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 리그 D조 4차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 경기 전반 36분에 손흥민이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2골 ... “득점왕은 살아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토트넘, 프랑크푸르트에 3-2 승

시즌 초반 부진에 시달렸던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도 멀티골을 폭발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독일)와 2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D조 4차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41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뛰며 두 골을 넣었다.

팀이 0-1로 끌려가던 전반 20분 헤리 케인이 찰러운 패스를 받은 그는 페널티 지역으로 쇄도하며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 구석을 찔렀고, 전반 36분에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그림 같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해 팀의 3-1 리드를 안겼다.

울 시즌 공식전에서 터트린 4, 5호 골이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를 3-2로 꺾고 D조 1위(승점 7·2승 1무 1패)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을 폭발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개막 후 8경기(정규

리그 6경기·UCL 2경기)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아 어깨가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9월 18일 레스터시티와 EPL 8라운드에서 시즌 마수결이 골과 함께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부활을 알렸고, 현재에선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신을 향한 의심을 불식시켰다.

이후 한국 축구 대표팀에 소집돼 A매치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돌아온 손흥민은 마침내 UCL에서도 조별리그 네 경기 만에 골 맛을 봤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에서 5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UCL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건 2019년 11월 초 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전 멀티골 이후 약 3년 만이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12차례 슈팅(유효 슈트 9개)을 기록했는데, 손흥민이 홀로 유효 슈팅 6개를 시도했다.

원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그는 양발로 한 골씩 터트렸다.

특히 전반 20분에 나온 득점은 케인과 공식전에서 합작한 50번째 골이다. 그는 승리의 ‘일등공신’ 역할을 해 경기 최우수선수(Player of the match)에 뽑혔다. /연합뉴스

김하성 ‘승리 요정’

MLB 포스트 시즌 3경기 연속 득점 ... 샌디에이고 승리 이끌어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포스트 시즌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 요정’으로 활약했다.

김하성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NLDS-5전 3승제) 2차전에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뉴욕 메츠와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3득점 이후 3경기 연속 득점이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으로 팀의 1번 타자로 공격 첨병 임무를 받은 김하성은 1회 첫 타석에서 다저스 선발 클레이튼 커쇼를 상대로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그리고 팀이 1-2로 끌려가던 3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커쇼와 9구까지 가는 대결 끝에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아 커쇼를 흔드는 데 성공했다.

후안 소토의 안타로 2루를 밟은 김하성은 매니 마차도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경기에 균형을 맞추는 등점 득점에 성공했다.

2022년 MLB 포스트 시즌 6호 득점을 낸 김하성은 포스트 시즌 득점 부문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후 세 번의 타석에서는 출루하지 못했지만, 대신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뽐냈다.

3-3으로 맞선 6회초 유릭스 프로파르의 적시타로 4-3 리드를 잡은 샌디에이고는 6회말 선발 다르빗슈 유가 윌 스미스와 맥스 먼시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1, 3루에 몰렸다.

다르빗슈를 대신해 마운드에 오른 로버트 수아



김하성

레스는 저스틴 터너를 삼진으로 처리한 뒤 1사 1, 3루에서 개인 렉스에게 2루수 쪽 내야 땅볼을 유도했다.

샌디에이고 2루수 제이코 크로넨워스는 느린 땅볼을 잡아 2루에 커브 들어온 김하성에게 송구해 첫 번째 아웃을 잡았고, 김하성은 1루에 대포알 같은 송구를 해 이닝을 끝냈다. /연합뉴스

광주FC,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 거둔다

내일 K리그2 44R 충남아산 원정

K리그2 챔피언 광주FC가 마지막 질주에 나선다.

광주는 15일 오후 3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FC를 상대로 K리그2 44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4경기를 남겨두고 ‘조기 우승’을 확정했던 광주지만 끝까지 가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경남FC와의 홈폐막전에서 엄지성의 골을 시작으로 마이키, 이경희, 산드로의 골 퍼레이드로 4-0 대승을 장식했다.

마지막까지 공격의 고삐를 풀지 않고 올 시즌 1-4 패배를 그대로 갇아준 광주는 이 승리로 K리그2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7년 경남이 만들었던 24승을 넘어 ‘25승’을 만든 광주는 최다승점 기록도 ‘85’로 경신했다.

또 이날 광주는 올 시즌 K리그2 최다 관중인

5861명의 홈 팬들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도 펼쳤다.

압도적인 질주 후 우승과 기록들을 만든 광주지만 아직 질주는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마지막 경기에서 기록들을 새로 만들면서 K리그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화력은 여전하다.

앞선 경남과의 홈 폐막전에서 4골을 몰아넣으면서 광주는 68득점으로 대전하나시시즌과 최다득점 공동 1위에 올라섰다

엄지성이 앞선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최종전 출전이 불발됐지만 앞서 경고누적으로 결정했던 두현석과 헤이스가 복귀해 광주 공격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광주의 또 다른 우승 전력 수비도 탄탄하다.

앞선 경기에서도 안영규와 아론, 김재봉 등 센터백 라인업은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만들면서 리그

최고 실점 1위(32실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2위 FC안양의 40실점에 한참 앞선 기록으로 경기당 실점이 0.8점에 불과했다.

중원에선 정호연과 박한빈이 왕성한 활동량을 과시하면서 도움도 기록하는 등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의 올 시즌 마지막 상대 충남아산은 현재 13승 12무 14패로 6위에 올라 있다.

리그 득점 선두 유강현(19골)을 비롯해 송승민, 박세직, 김강국 등이 경계 대상이다. 또 준플레이오프 진출권인 5위 경남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아산에는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다.

하지만 광주는 올 시즌 충남아산과 세 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였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의 골문을 노리면서 최다승과 최다승점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2022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